

4월의 기도

야훼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4.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5.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김태승, 오주봉, 이시은,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나는 가끔 시골에 있는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보낸 편지를 받습니다. 받는 주소가 '하나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우체국에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 하늘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린도전서 3:16)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요한에게 묻는다면 그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일서 4:4)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면 도대체 우리 속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머릿속에 계실까요? 마음속에 계실까요? 팔 혹은 다리에 계실까요?

성경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린도후서 1:22)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에도 함께하시고 불을 지날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창설 20주년>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희망의 20주년을 향하여... 선교에 불을 지피 땅 끝을 향한 외침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사역과 성령운동을 지원하는 선교전문기구로 2000년 3월 28일 창립되었다.

60여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은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왔다. 이 때문에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

님의 명성을 알게 되었고, 수 많은 성회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한 DCEM의 선교는 지난 세기 동안 여러 성회를 통하여 수천만 명 이상의 지구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더욱 폭발적인 성령운동을 펼쳐 나가,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행

1:8)"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언제든 달려나갈 것이다.

또한 DCEM은 앞으로도 조용기 목사님의 성회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그의 선교사역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다.

한편, 구소련 붕괴나 동북아대지진 등과 같은 국제 정세의 큰 변화의 현장 앞에서도 그치지 않는 선교사역은 현재, 우리의 개인 가정 직장 사회 국가의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앓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한 곳인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성회를 회고하면서 선교를 통한 성령 운동의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고자 한다.

되돌아보는 이탈리아 대성회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목사는 이탈리아의 복음화를 위해 로마, 리미니, 그리고 남부 시실리섬에서 각 1991년, 1997년과 1998년에 이탈리아 성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1998년 3월 26일부터 29일간 개최된 "이탈리아 시실리 대성회"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시실리섬 시실리 파라스 포츠 공설 운동장에서 연인원 2만여명이 참석하여 이탈리아 개신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군중이 모여 회개하고 신유를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었다. 성회 셋째 날에는 파라스포츠에서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설운동장으로 나가 예배를 인도했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28일에는 이탈리아 교역자와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98년 "이탈리아 시실리 대성회" 이후에도 이탈리아의 복

음화에 꾸준히 귀 기울여 오고 있다. 2015년에는 이탈리아 오순절 교단인 엘림 교단의 총재 삐폴로 목사와 만나 이탈리아의 복음화를 위한 환담을 나누었고, 삐폴로 목사는 이탈리아 전역에 조용기 목사님의 저서를 번역해서 오순절 신학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알리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삐폴로 목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안수기도로 그를 축복해주었다.

인구 6천만(2009년 기준)명이 살고 있는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있는 나라로, 장화모양의 반도와 2개의 커다란 지중해 섬으로 이뤄져있다.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북쪽으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해있다.

가톨릭의 총본산인 바티칸을 안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의 82% 이상이 가톨릭 신

자이다. 가톨릭은 이탈리아인의 생활·습관 속에 깊이 파고들어 바티칸과 이탈리아의 정치적·경제적인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신교를 외국의 종파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개신교 복음화율은 1% 이상을 넘지 않는다.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는 베니스, 파도바, 비센자가 있는 북동부 베네토 지방이다. 이탈리아의 복음화를 위해 특히 담대한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탈리아에는 신비주의 사상이 넓게 퍼져 있으며 상담을 해주는 전임 주술사가 10만 명에 이른다. 이는 가톨릭 신부의 수보다 3배나 많은 숫자다. 사단숭배는 북부에서 활발한데, 사단숭배자들은 투린 지방을 주요 중심지로 삼아 활동하며 이탈리아의 모든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제거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만큼 이곳은 영적전쟁이 치열한 곳이다.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사단숭배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다. 이탈리아의 복음화와 진정한 영적 연합을 위해 그리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영향력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며 죄악과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보면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해 듣는 이가 중심을 잃게 합니다. 방울뱀이 사냥할 때 꼬리를 흔들며 소리로 사냥감을 유인하듯이 마귀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마귀의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귀는 삶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동산을 잃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따라가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마귀가 다방면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면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오중복음

마귀와의 말싸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6~18절)

과 삼중축복과 4차원의 영성을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의의 옷을 받아 입고 성결과 성령충만의 옷을 받아 입고, 치료와 건강의 옷을 받아 입고, 아브라함의 복과 행통의 옷을 받아 입고,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중복음과 삼중의 축복의 옷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 입느냐? 바로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받아 입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었다. 나는 축복과 행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 영생의 옷을 입었다. 이러한 생각을 꿈꾸고 믿고 입술로 말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게 되고 삼중축복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심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을 좇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성령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옛날에는 가슴에 구리로 만든 흉배를 붙여서 적의 칼이나 창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주님의 의롭다 함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가슴에 간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단 한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서 예비해 놓

은 것을 우리가 신발로 신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돌 자갈밭과 가시밭을 만들어 놓아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 두고 굳세게 긍정적인 자세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다 방어용 무기였지만 최후로는 주님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은 원수를 공격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할 때는 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3. 말씀을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장이 우리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4차원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모든 무장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어라고 말하던 간에 사람의 말에 우리가 좌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리 보는 “2020년 개최 예정 성회”

DCEM, 복음의 사명 계속된다

지난 해부터 성회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 품어...



▲ 2019년 9월 15일, 총재 조용기 목사와 환담한 공히 목사 부부

◀ 2013년 7월,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싱가포르대성회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은 2020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싱가포르 성회를 코로나(Covid-19)로 인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DCEM에서 주관하고 시티하베스트교회(City Harvest Church)에서 주최하는 본 성회는, 싱가포르 내 현지 리더들을 위한 지도자 세미나로, 싱가포르 선택 시티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공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시티하베스트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를 배워 싱가포르에 여의

도순복음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라고 선포해온 이래 현재 지교회까지 합쳐서 5만 명이 출석해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약 1%가 출석하는 대형교회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총재 조용기 목사의 방문을 기다려 왔던 시티하베스트교회는 7년만에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는 이번 성회를 위하여 지난 연말 사전 정부 비자 승인을 마친 상태로 기다려 오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코

로나의 공포 때문이 아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워진 제한적 출입에 따른 국가적 예방에 동참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 되어 본 성회가 개최돼 사회 리더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며 싱가포르를 통해 기독교 복음이 중국대륙과 전세계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순절 영성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끊임없이 나아가다

오는 하반기, 대만 타이베이에서 성회 개최 예정



2019년 9월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축복성회



2019년 9월 조용기 목사 초청 대만축복성회, 조용기 목사와 장마오송 목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1980년 1월 대만교회연합 주최로 열린 대만 교역자 수련회 및 부흥성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4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오는 하반기 타이베이에서 개최 예정인 성회에서, DCEM이 주관하며 신띠엔 신타오교회에서 주최한다. 신띠엔 신타오교회는 1980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아시아방한성회에 참석한 장마오송 목사가 교회 성장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어 조용기 목사의 사역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대만을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신띠엔 신타오교회는 현재 4000명의 성도가 섬기고 있고 대만 외에 8개국에서 70개의 교회를 세워 전체 성도 수가 약 2만

여 명에 이른다. “조용기 목사님이 안계셨다면 지금의 신띠엔 신타오교회와 대만의 부흥이 없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장마오송 목사와 신띠엔 신타오교회 성도들은 이번 조용기 목사의 방문에 큰 기대와 감격을 가지며 준비하고 있다.